



“원석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



석회산업은 전산업 공정에 다양한 기초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넓은 범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풍부한 매장량으로 인해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랜 기간 꾸준히 원석공급을 통해 그 자리를 지켜왔던 대성MDI(주)가 대성GMTech(주)를 중심으로 원석의 가치를 불어넣어 석회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도전한다. 그들의 도전정신을 이번 <석회> 46호에 담아본다.

취재 <석회>지 편집실

“원석에 가치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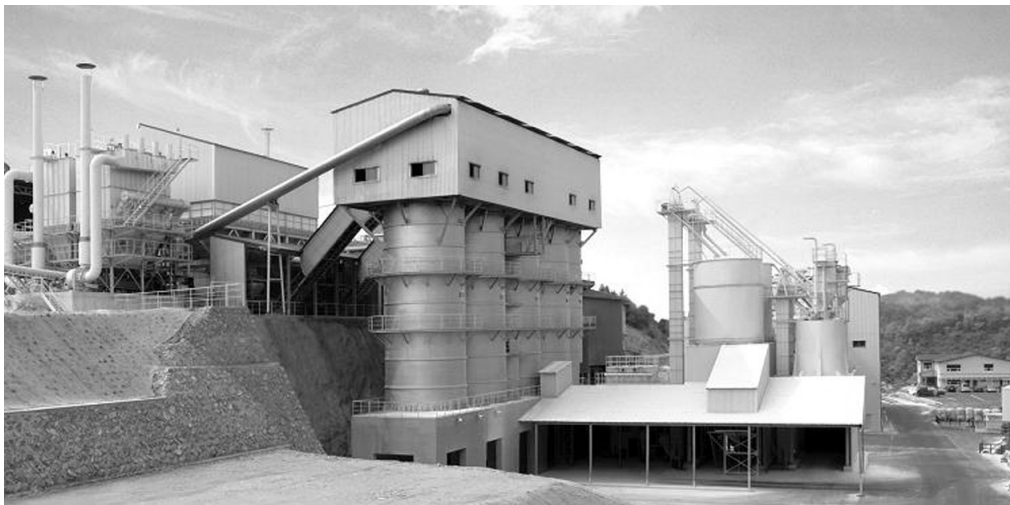
대성GMTech은 1976년에 설립되어 제철, 제강 및 화학원료용 석회석과 백운석을 생산하는 업체로 시작된 대성MDI (구. 대성광업개발)에서 법인분할되어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석회질비료와 포스코로 납품되는 생석회 및 경소백운석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이다.

석회석과 백운석 생산의 광업위주였던 대성MDI가 가공분야에 주력하는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대성GMTech은 대성의 가공분야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성GMTech의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비전을 알아본다.

“대성GMTech의 걸어온 길은?”

대성MDI가 기존의 광산업 위주의 사업에서 가치부가를 통한 가공업분야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성MDI의 광산사업은 1980년대 단양, 영월, 쌍용, 옥동, 동해, 제천광산을 개발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중 쌍용광업소가 GMTech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토양개량제인 입상 석회고토비료 및 경소백운석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성GMTech으로 법인분할이 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성광업개발이라는 같은 줄기를 가지다가 광업분야는 MDI로 가공분야는 GMTech으로 서로 다르게 가치를 뽐은 나무라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대성GMTech 공장 전경

현재는 원석가공분야의 기반이 이 GMTech으로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광된 석회석과 백운석의 품질에 대한 관리나 그 가공제품들의 품질관리도 1990년부터 운영되어진 품질관리팀의 시험검사실이 확대 개편된 R&D센터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광물의 분석과 생산되는 가공제품들의 시험검사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적합품의 식별 및 통제를 하고 있으며 가공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업환경에 맞추어 원석 채광방법의 굴진화와 가공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집진시설의 강화와 세정탑을 활용한 냄새 제거 등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석회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배출가스에 대한 대처계획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GMTech을 중심으로 MDI소속 사업소들과 함께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회석조합과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등의 유관단체들과의 연구개발 교류를 통한 석회제품의 신소재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대성GMTech의 Shaft kiln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노력은?”

입상석회고토 생산시설은 이미 석회질비료를 생산해왔던 여러 업체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백운석의 광물적 특성상 입상화를 위해서는 바인더(결합제)의 사용조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을 찾아 품질이 안정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여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GMTech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었던 업체들을 교훈 삼아 입상화 공정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한정된 바인더공급으로 인한 생산차질에 대비하여 다양한 바인더를 사용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존 바인더가 가지는 냄새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세정탑시설을 갖추어 냄새를 원천 제거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Shaft kiln을 준공하여 포스코를 비롯한 다양한 수요처에 소성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성로보다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재가격폭등으로 인한 무연탄 수급의 어려움과 저품위의 무연탄을 가지고도 안정된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운전조건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성GMTech의 R&D Center

이 밖에도 화학원료용 촉매담체, 충전제, 고활성, 내열성 등의 고품성 제품을 연구개발 중입니다.

“대성GMTech의 경쟁력의 원천은?”

대성GMTech의 석회석가공품 분야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의 원광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종업체에 비해 석회석과 백운석등 다양한 품질의 원석을 확보하여 원광수급에 어려움이 없으며, 고 부가가치 가공제품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향후 국내 석회석가공품 분야의 선두 역할을 하기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성GMTech에서의 미래비전은?”

▷ Creativity 창의적인 사고

GMTech의 미래는 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데에서 출발합니다.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상하고 과감하게 실천합니다. 기존제품의 경쟁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의 핵심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 Reliability 신뢰받는 경영

투명한 윤리의식과 따뜻한 나눔사랑으로 보여주는 GMTech의 책임의식은 소비자의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의 난맥을 단호히 제거하고 친환경경영을 경영목표의 최우선으로 설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 Challenge 진취적인 도전

낙후된 자원개발의 척박한 토양에서도 GMTech은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자원개발의 표준을 만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GMTech은 진취적인 패기와 뜨거운 열정의 바탕에서 기술경쟁력의 확보와 인간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으로 또다른 성장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대표이사에게 듣는다.”

1970년대에 설립된 대성MDI는 지난 30여년간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개척정신으로 자원개발에 힘쓰면서 국가기간산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우수한 제품과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자원개발의 선두주자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첨단설비의 구축과 고부가가치제품의 연구개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법인을 분할하여 대성GMTech이 탄생하였고, 이 법인을 통하여 앞으로도 친환경공법을 적극 개발하고 엄격한 자체환경기준을 세우는 등 인간과 환경의 슬기로운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정신을 되새기며 기업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사업을 개척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성GMTech의 입상석회고토비료 생산시설



대표이사 회장 김 영 범